



코닥과 손잡고

넥스프레스 · 디지털마스터 공급

(주)신도리코(대표 우석형, www.sindo.com)는 지난 11월 14일 서울 성수동 신도리코 본사에서 글로벌 기업 이스트만코닥(Eastman Kodak Company)과 상업용 디지털 인쇄기의 국내 공급 제휴식을 갖고 상업용 디지털 인쇄기 넥스프레스(Nexpress) 출시 발표회를 가졌다. 또한 데모센터를 공개하고 넥스프레스를 시연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넥스프레스의 특징점을 적극 홍보했다.

코닥과 국내 최초로 공급 제휴를 맺은 신도리코는 넥스프레스 출시를 기점으로 디지털 상업 인쇄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신도리코와 코닥은 영업·서비스 제휴를 시작으로 향후 생산 및 개발에 이르는 전 과정까지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도리코는 최첨단 디지털 이미징기술을 보유한 코닥과의 제휴를 통해 컬러 및 흑백 디지털 인쇄 기술을 확보하고 영업 인프라 구축, 증장기 전략 수립 등 신규 사업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제휴를 통해 프린터, 복사기, 복합기 등을 비롯한 기업용 사무기기에서 하이엔드 디지털 인쇄기까지 제품군을 확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솔루션 업체로 성장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47년간 국내 프린터 시장을 선도하며 쌓아온 오피스 솔루션 전문 기업의 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 상업 인쇄 시장에서도 개인별로 다양한 구성의 인



디지털 상업 인쇄 시장은 최근 인쇄 전문 업체나 기업에서 다양한 구성
이 가능한 다품종 소량 인쇄, 개인 맞춤형 인쇄 비중을 높이면서 전세계
적으로 연간 3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차세대 성장 시장이다.



쇄가 가능한 개인화된 DM 인쇄, 맞춤형 포토 및 학습지 인쇄, e-북 출력 등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표희선 신도리코 사장은 “디지털 상업 인쇄 시장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기업 코닥과의 제휴를 통해 차세대 성장 사업 동력의 하나인 상업 인쇄 시장으로 신규 진출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프로덕션 프린팅 솔루션 서비스를 통해 전문 인쇄 사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기술 및 영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도리코에서 새로 출시하는 상업용 디지털 인쇄기는 2종류로, 컬러 디지털 인쇄기인 넥스프레스(NexPress)와 흑백 디지털 인쇄기인 디지마스터(Digimaster)다. 이 장비들은 빠른 인쇄 속도로 생산성이 높고 상업 인쇄에 적합한 높은 내구성을 자랑한다. 넥스프레스는 분당 83매

인쇄가 가능하며 5색의 고품질 인쇄물을 출력할 수 있다. 용지의 두께와 용지 재질에 따라 정착부 설정 자동 보정으로 정착롤러의 온도 조절과 가압 롤러의 NIP량으로 속도의 변화없이 고속 인쇄가 가능하다. 오프셋 프로세스와 동일한 직선경로를 채택하고 블랭킷 실린더와 이미지 실린더를 장착, 5색 컬러 출력 시에도 4색과 동일한 인쇄속도를 실현한다. 오퍼레이터에 의해 교체 가능한 부품(ORC)이 80%이고 유희타임의 감소와 서비스 비용이 절감, 생산성 증대 효과가 있다.

디지마스터는 월 2백만 페이지 이상 인쇄가 가능할 정도로 생산성이 높으며 내구성이 좋아 DM 출력, 출판, 상업인쇄 등에 적합한 디지털 인쇄장비로 활용도가 높다. 이외에도 디지털 인쇄기와 함께 소량다품종인쇄, 가변 데이터인쇄, 인쇄공정관리를 위한 솔루션 및 통합 워크플로도 함께 출시했다. 조갑준 차장 kjcho@print.or.kr